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2. 26(월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 해외건설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성호, 팀장 이두희, 사무관 김지우, 주무관 남혜숙 • ☎ (044) 201-4583, 4813	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 차질 없이 추진중 - 임·직원 채용, 자본금 출자 등을 거쳐 상반기 공식 출범 예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의 자본금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며,
 -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(약 2천억원)는 KIND의 예상 투자 규모 등을 감안*하여 최초 KIND 구상 당시부터 추진중인 금액으로, 신규 기관 설립시 법정자본금보다 적은 규모로 최초 자본금을 조성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증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.
- * 납입자본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채권 발행 및 자금 차입 가능
- 또한,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출자 가능기관은 KIND와의 업무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을 예시로 규정한 것이며, GIF 수익증권 현물출자 및 관련 기관들의 현금출자를 병행하여 KIND가 설립 초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.
- KIND는 임직원 채용, 자본금 출자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공식 출범을 준비중이며, 설립 후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(건설경제신문, 2.26(월) >

- ◆ “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, 6월 ‘반쪽’ 출범”
- 법정자본금 5000억원 가운데 납입자본금 2000억원 규모로 설립
- 수은, 산은, 무보를 주요 출자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 규정 마련하였으나 산은, 무보 불참 예정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지우 사무관(☎ 044-201-4583), 남혜숙 주무관(☎ 044-201-48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